

국별 리포트

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이집트(Arab Republic of Egypt)

I. 일반개황

면적	1,002천 km ²	G D P	2,218억 달러 (2010년)
인구	84.6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2,622 달러 (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Egyptian Pound (E£)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5.5 (2010년)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인구 8,5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임.
- 풍부한 노동력,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 정책 등으로 역내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1981년 취임한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 동안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1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장기 집권의 막을 내렸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6.8	7.1	7.2	4.7	5.2
재정수지/GDP	-8.2	-7.3	-6.8	-6.6	-8.0
소비자물가상승률	7.6	9.3	18.3	11.8	11.4

자료: IMF 및 EIU.

□ 세계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소폭 상승

- 2006~08년* 이집트 경제는 관광산업 호조, 고유가에 따른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증가와 투자환경 개선 및 정부의 경제 개혁 추진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천연가스 수출과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7%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이집트의 회계 기준 연도는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임.

-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천연가스 부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하여 성장률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 이집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건설, 통신 부문의 성장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

- 재정수지는 확대재정정책, 비대한 공공조직,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경제 성장에 힘입은 세수 확대, 각종 보조금의 점진적인 축소 등의 개선 요인이 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적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6년 8.2%에 달하였으나, 공기업 민영화와 세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6.6%까지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경기부양 정책 지속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8%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

-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및 에너지 가격 불안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의 영향으로 18.3%의 기록하기도 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 소비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8%로 둔화되었으며, 2010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1.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08년을 기준으로 관광, 수에즈운하 운영, 기타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 및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이 37.5%, 면화 중심의 농업 부문이 14%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국내 정치, 중동 정정불안, 테러 발생, 세계 운송경기 등 대내외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원유는 최대 유전 지역인 수에즈 유전이 고갈되면서 생산량이 1998년 86만 배럴/일에서 2009년 74만 배럴/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천연가스는 나일강 삼각주 및 서부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에 성공하여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 천연가스는 2009년 기준 확인매장량이 77조 ft^3 (전세계 매장량의 1.2%, 15위)로서 이집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였는데, 정부는 추정 매장량을 1,203조 ft^3 로 예상하고 있음.
- 이집트는 가스수출국포럼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회원국으로 2005년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009년 천연가스 수출 규모는 183억 m^3 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음.
 - * GECF는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모임으로 200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2008년 정식 기구가 되었음. 러시아, 이란 등 11개 GECF 가입국이 세계 가스 매장량의 70%,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집트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9년 기준 627억 m^3 로 전세계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 이집트 정부는 2008~10년에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약 54억 달러 (300억 이집트파운드, GDP의 약 3%)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2008/09 회계연도에 150억 이집트파운드가 도로, 항구 등 인프라 건설 및 자유무역지대 개발 등에 투입되었으며, 2009/10 회계연도에도 150억 이집트파운드에 인프라 건설 및 수출 보조금 등에 투입되었음.

○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정부는 산업용 천연가스 및 전기료 동결, 카이로 인근 신규 산업공단 조성 등의 단기 부양책도 병행하였음.

□ 자본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 이집트 정부는 2009년 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단행하였음. 관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총 3억 달러로 예상되며 자동차, 식품 산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관세 인하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기계류, 열교환기, 동축 케이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2,635	412	-1,415	-3,349	-4,571
경 상 수 지 / G D P	2.4	0.3	-0.9	-1.8	-2.1
상 품 수 지	-8,438	-14,900	-19,759	-16,818	-25,286
수 출	20,546	24,455	29,849	23,089	23,496
수 입	28,984	39,354	49,608	39,907	48,782
외 환 보 유 액	24,341	30,054	32,108	30,947	37,183
총 외 채 잔 액	29,339	35,636	39,934	32,415	39,041
총 외 채 잔 액 / GDP	27.2	27.0	24.2	17.3	17.6
D S R	5.6	6.2	4.5	6.6	5.2

자료: IMF 및 EIU

□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음. 2006~07년에는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외화획득원인 관광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수에즈운하 운영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상품 수입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1.6%로 확대되었음.
 - * 연도별 상품수지 추이: △84억 달러(2006년), △149억 달러(2007년), △198억 달러(2008년), △168억 달러(2009년), △253억 달러(2010년)
 - * 연도별 서비스수지 추이: 87억 달러(2006년), 112억 달러(2007년), 143억 달러(2008년), 132억 달러(2009년), 129억 달러(2010년)
- 2010년에도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축소 추세가 지속되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1%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 보유액 증가 추세

- 주요 외화 획득원인 관광수입의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외환보유액은 2006년 256억 달러에서 2010년 372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음.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황 양호

- 외채규모는 최근 수년간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DP의 지속적 증가로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06년 27.2%에서 2010년 17.6%로 하락하였음.

- 2010년 DSR은 5.2%로 최근 수년간 5~7%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보이고 있음.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 1981년 사다트 (Muhammad Anwar el-Sadat) 대통령 후임으로 취임한 무바라크 (Hosni Mubarak) 전 대통령은 30년 간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였음. 국제사회의 정치개혁 요구에 따라 2005년 9월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도 승리하였음.
-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집권당인 국민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의 과반수 의석 확보, 헌법 개정을 통한 이슬람교 과격세력의 효과적 통제 등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음.
- 2010년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8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야당 및 이집트 국민들은 현 정권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개혁을 요구하였음.

□ 반정부 시위 발생 및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 튀니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혁명은 물가 상승 및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이집트로 확대되어 2011년 1월 25일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이에 무바라크 정권은 대통령 연임 제한, 야권 인사들의 대선 출마 허용, 공공 부문 급여 15% 인상 등의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시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및 의회 해산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였음.

- 무바라크 정권과 시위대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였던 이집트 군부가 국민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무바라크에 퇴진 압력을 행사하면서 무바라크 대통령은 시위 발생 18일 만에 퇴진 의사를 밝혔고, 30년 간의 장기집권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음.

□ 과도정부의 구성 및 국정 운영

- 대통령의 퇴진 이후 군사평의회가 권력을 이양받아 2011년 9월로 예정된 대선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위 기간 중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민심 수습을 위해 구성한 과도내각은 선거가 진행되기 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아흐메드 샤피크 총리가 과도내각을,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 국방장관 겸 부총리가 군사평의회를 이끌게 되었음.
- 군사평의회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개헌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헌법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과도내각은 대통령의 퇴진 후 첫 회의를 열어 치안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 식료품 가격 안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2011년 9월 대통령 선거 예정

- 2011년 9월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군부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임.
 - 대통령 후보로는 여권 인사인 암르 마무드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 오마르 술피만 부통령과 야권 인사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모하메드 후세인 탄탄위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05년 총선을 통해 최대의 야권 세력으로 급부상한 '무슬림형제단'이 최근 반정부 시위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정 혼란이 지속될 경우 군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돌발 변수가 남아 있어 정치적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불확실성 증대

- 이집트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미국 및 서방 세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방 강대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아 왔음.
- 특히 미국은 매년 대규모 경제,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이집트 최대 교역 대상국임. 무바라크 정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및 이라크 문제에서 서방측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 중동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친미 및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였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
 -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던 국민들이 미국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이집트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과동 정권 및 차기 정권에서 미국 등 서방의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이집트에 13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원조 또한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친서방 정책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중동 평화구축 중재자 역할 수행

- 이집트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이후 1979년에 아랍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음. 인근 아랍국가도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 중동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대 아프리카 외교관계 강화

- 2005년 이집트, 에티오피아 정상회담 및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정상회의를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이집트 상품의 대 아프리카 수출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간헐적 테러 발생

- 1997년 외국인 관광객 등 62명이 사망한 룩소르 (Luxor) 테러 사건 이후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테러가 최근 간헐적으로 재발하고 있음.
 - 2005년 4월 카이로 중앙광장 자폭 테러 (외국인 3명 부상), 2005년 7월 시나이반도 샴엘셰이크 폭탄 테러 (64명 사망), 2006년 시나이반도 다합 폭탄 테러 (19명 사망), 2009년 카이로 시장 폭탄 테러 (1명 사망), 2011년 알렉산드리아 교회 폭탄 테러 (21명 사망) 등
- 최근의 국지적 테러 사건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일부 극단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무슬림형제단 등은 강경투쟁 노선에서 선회하여 정당 결성을 도모하였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의 활동, 이라크전을 전후한 반미시위, 식량 부족으로 인한 폭동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2011년 1월에는 곡물 가격 폭등, 실업 문제 등의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이집트 국민들에 의해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되었음.
 -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튀니지 혁명의 영향으로 촉발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반정부 기운 전파로 종교세력뿐 아니라 청년, 근로자,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음.
- 무바라크 정권을 지지하는 중산층 중심의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시위 발생 이후 최소한 300여 명이 숨지고, 5,0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군사평의회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시위자들이 정치범 석방과 긴급조치법 및 군사법정 폐지, 자유선거를 통한 신속한 문민통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사회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OECD	4등급 (2011.1)	4등급 (2010.1)
S&P	BB (2011.2)	BB+ (2005.3)
Moodys	Ba2 (2011.1)	Ba1 (2009.8)
Fitch	BB (2011.2)	BB+ (2008.8)

□ 반정부 시위 확대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고, 2011년 9월 대선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자 무디스 등 3개 신용평가사는 동국의 신용등급을 모두 1 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동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경험

- 이집트는 파리클럽과 1987년, 1991년 각각 71억 달러, 212억 달러 규모 리스케줄링에 외채 잔액이 1989년 500억 달러에서 1991년 3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외채도입에 신중한 자세 견지

- 리스케줄링 이후 이집트 정부는 외채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외채 잔액은 300억 달러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이집트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548	1,528	2,240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수 입	1,330	463	938	석유제품, 천연가스, 정밀화학원료
합 계	2,878	1,991	1,991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95. 4. 13 (북한과는 1963. 8. 25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1968), 무역진흥협정(1984), 항공협정(1988), 이중과세 방지협정(1994), 투자보장협정(1996), 보건협력협정(2000), 차관 공여협정(2001), 원자력협정(2002)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 규모는 2006년 13억 달러에서 2010년 32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2006년 4억 달러에서 2010년 13억 달러로 늘어났음.

- 2010년 대 이집트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2억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9.4억 달러를 기록함.
 - 2009년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8.4억 달러 수준으로 대 이집트 수출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8월 GS건설이 미쓰이와 컨소시움을 이루어 연산 5백만 톤 규모의 ERC 정유사업 EPC 계약(21억 달러)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2월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정부와 4천억원 규모의 아인 소크나 (Ain Sokhna) 화력발전소(발전용량 1,300MW)의 보일러 기자재 공급 및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1년 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 1회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집트의 신재생에너지, 원전, 지하철 등 인프라 사업과 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치 불안으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직접투자 (2010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24건 177백만 달러

V. 종합의견

- 이집트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호조와 에너지 부문 성장,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6~08년 7% 수준의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4.7%로 하락하였음.

2010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건설, 통신 등 비석유 부분의 성장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기조로 연간 GDP의 8%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상품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상수지는 당분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높은 물가상승률과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도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음.

-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굴복하여 30년 간 장기 집권하였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고 군사평의회가 국정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2011년 9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 사회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반정부 시위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였고 시위 기간 동안 주요 외화 획득원인 관광수입이 급감하였으며,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어 정치 불안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이현정(☎02-3779-5724)

E-mail : lhj0316@koreaexim.go.kr